

# 6

## 깨끗해진 나아만

열왕기하 5:1~5:19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나?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매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 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많은 예물과 아람 왕이 써 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므로 문둥병을 꼭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나?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 말했습니다.

성경 암송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11)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이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이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sup>1</sup>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낮게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이만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나이만의 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보다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강물에 들어가 씻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나이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 일곱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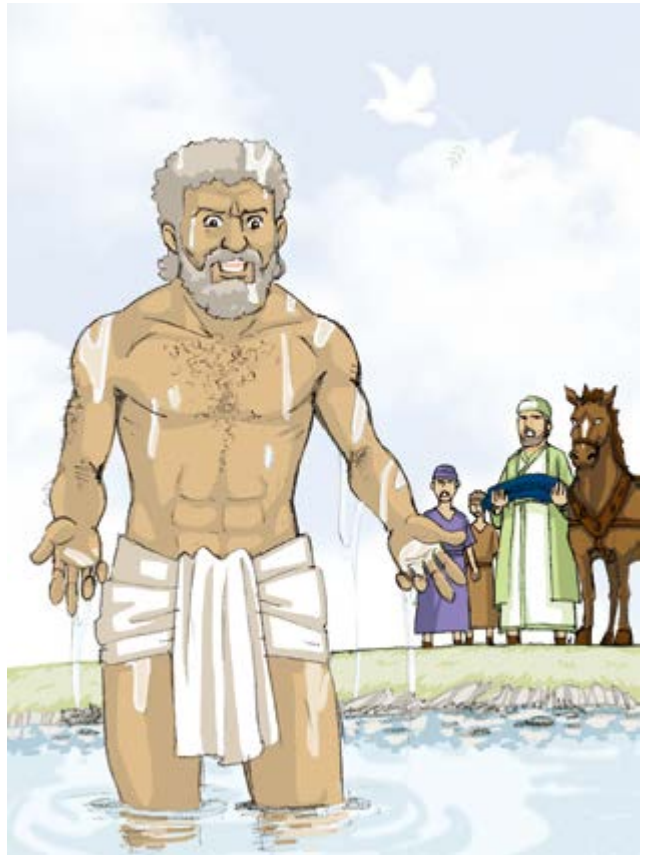
그러자 나이만의 문둥병이 나아서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만은 너무 기뻐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이만은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sup>1</sup>당처: 문둥병이 생긴 부분





다음은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나아만이 어떻게 말하거나 생각했는지 써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계집중



나아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거예요.



엘리사



나아만



문둥병이 낫기 위해 그보다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강물에 씻는 일이 아닙니까?



나아만의 종



나아만



주인님, 정말 온몸이 깨끗해지셨네요!



나아만의 종



나아만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는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비유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 나아만
- 문둥병
- 계집종
- 엘리사

-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
- 죄인 된 우리
- 말씀을 전하신 분(성경)
- 더러운 우리의 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며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성경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6)

## 예 화



###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문둥병자

누가복음 17장 11~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난

선생님난